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발사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4'. /연합뉴스

北 “ICBM ‘화성-14형’ 발사 성공”

<대륙간탄도미사일>

조선중앙TV 특별중대 보도
“2802km 상승 933km 비행”
文대통령 NSC 회의 주제
“레드라인 넘지 말라” 경고

북한은 4일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북한 관영 방송인 조선중앙TV는 이날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북한은 이날 보도에서 “탄도로켓 화성-14형은 4일 오전 9시(평양 시각) 우리나라 서북부 지대에서 발사되어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39분간 비행하여 조선 동해 공해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고 밝혔다. 또 “시험발사는 최대 고각발사 체제로 진행되었으며, 주변국가들

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면서 “대륙간 탄도로켓은 정점고도 2802km까지 상승하여 933km의 거리를 비행하였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3면> 보도는 ICBM 발사 전날인 지난 3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를 단행할 데 대하여’를 친필로 직접 명령하고 이날 로켓 발사 과정을 현지에서 직접 관찰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와 함께 세계 그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는 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켓을 보유한 당당한 핵강국으로서 미국의 핵전쟁 위협 공갈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ICBM 발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새벽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지 사흘만이다. 이 때문에 한미 양국의 긴밀한 대북 공조에 반발 차원에서 ICBM 발사가 실행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5분 만인 이날 오전 9시45분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NSC 상임위원회 소집을 지시했다. 이어 정 실장 주재로 오전 11시 30분부터 진행되던 NSC 상임위는 정오를 기해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NSC 전체회의로 전환됐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와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며 “외교·안보부처는 미국 등 우방과 공조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 및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도 “북한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평화방식에 호응하지 않고 레드라인을 넘어선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가 없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북한의 도발이 또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핵정책 기조에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가 위기 상황이고, 지금은 압박과 제재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전체적인 우리의 기조 자체가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오전 9시40분께 평안북도 방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40여 분간 930여km를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3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 광주 출신 문무일 고검장 지명

법무장관-총장 ‘호남 투톱’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광주 출신 문무일(56·사진) 부산고검장을 지명했다. 문 고검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찰총장에 최종 임명되면 12년 만에 호남 출신 검찰총장이 된다. <관련기사 3면> 박승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하며 “문 후보자는 치밀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검찰 내부의 신망이 두터워 검찰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검찰 개혁의 소명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 중수 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성안동리서트 특수팀장 등을 역임하면서 대형 부패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아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법무-검찰 수뇌부가 동시에 장기간 공백인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이급로 법무 차관의 제정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문 고검장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손발을 맞출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과 검

찰총장 후보가 모두 호남 출신 인사로 채워졌다. 앞서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안 출신이다. 문 고검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찰총장이 되면 김종민 전 검찰총장(여수) 이후 12년 만에 호남 출신 검찰총장이 나온다. 또 ‘호남 출신 장관-총장’ 체제도 참여정부 시절 ‘전철배 장관(신안)-김종민 총장’ 이후 처음이다. 문 고검장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관심이 컸던 정·재계 비리 사건들을 수사해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룡’으로 평가된다. 특수1부장 재직 당시 이명박 대통령 이 연루된 BBK 의혹 관련 김경춘 씨의 ‘기획 입국살’을 수사했다. 2014년 서울서부지검장 시절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땀공회화’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2015년 성안동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이른바 ‘성안동리서트’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에 임명돼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등을 기소한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도시근린공원 최대 보존이 대원칙”

윤장현 시장...중앙·중외공원 등 6곳 공영개발 시사

윤장현 광주시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근린공원 내 아파트 개발과 관련 도시근린공원의 최대 보존이 대원칙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윤 시장은 4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회의’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아파트 개발이 예상되는 수광·마루·송암·봉산근린공원 등 4곳에 대해서는 불가피하지만 나머지 6개 공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유지하고 개발에 나설 경우 공영개발에 무게를 두고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광주 도시를 보면서 이렇게 회색도시, 아파트 숲이 도시를 점령하게 됐느냐는 것에 대해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대원칙은 이유없이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시장은 “한편 불합치 판정으로 인해서 2020년까지는 개인사유지를 사들여 공원을 조성하려면 2조7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방정부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며 “중앙·송암·일곡공원 등 3대 공원에 대해서 국가공원으로 지정해줄 것을 지난 정부에 계속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강력하게 새 정부에 이를 요구하면서 광주의 허파인 도시공원이 난개발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대한 보존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무안출발 일본여행

2017. 07. 07(금) ㅈ~우~욱~~~~~

기타큐슈

일본국적 스타플라이어

선박+항공 711 718 ※선착순 한정 특가

3일 북큐슈 298,000원 부터

4일 북큐슈·아마구치 398,000원 부터

항공 3일 721 728

북큐슈 3일 549,000원 부터

큐슈·아마구치 3일 699,000원 부터

항공 4일·5일

북큐슈 4일 649,000원 부터 **81 85 88**

큐슈·오사카 5일 698,000원 부터 **820**

자유여행 항공권 198,000원(TAX포함)부터

다낭 무안출발

베트남항공

여름 휴가기간(3박5일) 단, 4회!

7/30(일), 8/3(목), 8/7(월), 8/11(금)

[실속] 다낭·후에·호이안 999,000원 부터

(둘째날 오전 자유시간)

- 포함 사항: 무안 ↔ 다낭 왕복항공요금, 1억원 여행자보험, 호텔(2인1실), 식사, 차량, 한국어 가이드, 일정상의 관광지 입장료, 차량 배낭
- 불포함사항: 현지 가이드 및 기사 경비(상인 \$40, 만 12세 미만 \$30), 개인 경비, 선택 관광, 메리트, 싱글차지(3박 - 총액 \$120, 4박 \$210, 5박 \$315)

노담·노음산

다낭·후에·호이안 1,299,000원 부터

- 포함 사항: 무안 ↔ 다낭 왕복항공요금, 1억원 여행자보험, 호텔(2인1실), 식사, 차량, 한국어 가이드, 일정상의 관광지 입장료, 차량 배낭
- 불포함사항: 현지 가이드 및 기사 경비(상인 \$40, 만 12세 미만 \$30), 개인 경비, 선택 관광, 메리트, 싱글차지(3박 - 총액 \$120, 4박 \$210, 5박 \$315)

제주도 올레 2박3일

289,000원 부터

~ 2017년 12월 31일 까지

울릉도&독도 2박3일

464,000원 부터

홍도&흑산도 1박 2일

245,000원 부터

2억원 영업보장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전화: 062-234-3222
FAX: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대표이사) 최금환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요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주다2003-1호
 ● 공동주최: 여행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여행: 1억원, 국내여행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열버스 / 전 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장보험 가입 / 여행경비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예약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 경비(호텔, 식사, 가이드, 선택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용에 따라 다름